

광주시 '감염경로 미궁' 40대 모녀 확진

동선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 확인 안돼

남편과 아들 음성...추가 역학조사 실시

광주에서 코로나19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서구 화정2동에 거주하는 40대 여

성 A씨와 중학생 딸 B양이 양성 판정을 받아 조선대병원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여 7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으며, B양은 무증상

상태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함께 거주하는 A씨의 남편과 아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 모녀의 2주 간 이동동선을 확인했으나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추가 역학조사를 받고 있다.

A씨가 방문했던 화정동 식자재 마트와 약국, 커피숍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완료했다.

방역당국은 A씨 모녀의 밀접접

촉자 22명을 확인해 자가격리 조치했고, 동선이 겹친 251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이 중 96명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A씨 모녀의 휴대전화 GPS와 방문지 CCTV,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회해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며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접촉자들의 검사도 안내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집중호우 피해 공공기관 시설물 점검 이용섭 광주시장이 9일 오후 광산구 평동역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 여수 10·19사건 '피해기록 보존' 착수

오늘부터 피해 신고 접수

전남도는 10일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 접수에 들어가, 피해자 유족 증언 녹화 지원과 피해 현황 파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도내 22개 시군에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렸다.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에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유족 신고 창구'를 마련해 오는 11월까지 신고 접수에 들어간다.

신고대상은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으로, 유족은 물론 경원자, 목격자 등 피

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도내 거주자의 경우 시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되고, 타시도 거주자는 전남도 자치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신고는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2주년을 맞아 유족 증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배·보상이나 지원과는 무관하다.

전남도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에 대한 유족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국가 차원의 조사에 대비하고 역사 교육자료 등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여수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찬국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피해자 유족 등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 국가차원의 진실규명에 대비하고, 많은 분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정확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공동 발의와 총 152명의 의원 찬성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김정현 기자

동구, 코로나19실업자 제2인생 돕는다

광주 동구와 노사발전재단 중앙년일자리희망센터가 손잡고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버인자놀이지도사 1급 자격과정을 운영한다.

10일부터 시작되는 실버인자놀이지도사 자격1급과정은 만40세 이상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실직자와 구직자가 대상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인생 되돌아보기 3시간 ▲생애경력계획 설계 3시간 ▲실버인자놀이지도사 자격과정 20시간이며,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수강료는 전액무료. 기타 자세한 문은 미래교육과 평생교육계 ☎08-2324.

서구, 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착용 캠페인

광주 서구는 지난 4일 제293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구 치평동 상무역에서 실시한 이날 캠페인에는 서구 안전모니터 봉사단, 안전보안관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리플릿, 마스크를 배포하는 등 주민 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진행했다.

또, 여름철 폭염, 호우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그늘막 및 배수관 등 생활속 위험요인 안전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남구 청소년도서관, ZOOM 독서 프로그램 운영

광주 남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청소년도서관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각종 대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달부터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강의 플랫폼(ZOOM)을 활용한 7지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온라인 강의 소프트웨어인 ZOOM을 활용해 선보이는 독서 진흥 프로그램은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치유·그림책·힐링과 아이를 위한 부모 인문학이다.

북구, 일곡·운암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강좌 운영

광주 북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공모에 선정돼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2020 길 위의 인문학' 강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운암도서관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전문 강사와 함께 환경문제와 팬데믹 등 이슈에 대한 고민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의는 9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다.

이와 함께 일곡도서관에서도 10월까지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지역민의 일상에 녹아든 공공미술, 광주 풀리'라는 주제로 ▲도시와 공공미술 ▲광주의 문화지극체 풀리 ▲공공미술과 광주의 문화풍경 ▲광주 풀리 탐방 등 강의와 함께 탐방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광산구, 모범 방역 상가 인증 사진 SNS에 올리세요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지역사회 재 확산으로 위축된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시민의 골목상점 안심 이용을 위해 '자장님 희망 캠페인' 2탄으로 '모범 방역 상가 찾기'를 다음달 2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산구 골목상점을 방문한 다음, 모범 방역 상가 인증 사진·영상을 본인의 SNS에 '#광산구모범방역상가' '#상호명' '#힐내자광산소상공인' 등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된다. 골목상점 상인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가게 사진·영상을 올려도 된다. 광산구는 캠페인 참여자에게 선호도 조사와 추천 등을 거쳐 광주 상생카드와 은누리상품권 등을 준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 이용 시민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0년단118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망자: 조귀환 (461228 - 1665818)
 최후주소: 전남 진도군 의신면 첨계길 17-5(첨계리)

위 망 조귀환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제2항에 대한 공고, 최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할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8월 10일

공고인: 김금자, 조재천, 조민하, 조유미
 주소: 전남 진도군 진도를남동1길 6-2,101동703호
 (남동리, 청림모드네이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2020년 7월 23일
 공고기간: 2020. 8. 10 ~ 2020. 10. 10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연도	보험료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보험
2009년	240,833원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2016년	104,062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고객센터 1577-1000